

공단기 관리형 종합반 성적 현황					
구분	국어	영어	한국사	총점	출석율
진단고사	50	65	30	145	
중간고사	70	70	65	205	97%
기말고사	65	80	55	200	

●개인별 상담등을 통해 앞으로 맞춤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공단기 프리패스를 끊어 집 근처 독서실을 다니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공부이다 보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도 않았었고, 철저히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아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매일 늦게 일어나 독서실은 두 세시 쯤 가기 일쑤였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시간을 보냈고, 결과적으로 이런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으로 인해 처음에 세운 계획과는 다르게 2개월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반과 함께 공부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처음 공무원 공부를 혼자 시작했을 때 누구의 도움도 없이 막연하게 혼자 해야 해서 어려웠던 것들이 공단기에서는 체계적으로 교수님들과 담임선생님들의 관리 아래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저는 효율적으로 계획과 목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부원장님 등 수험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1:1로 진행되는 상담들은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슬럼프를 극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랑진까지의 40분정도 걸리는 거리여서 최대한 남들보다는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6시 20분에 일어나 학원에는 7시 20분에 도착하자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세웠고, 잠자는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은 6시 20분이었습니다. 영어 공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휘 능력이라 생각했고, 앉아서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이동하면서 단어장을 가지고 다니며 이동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단어를 외웠고, 학원에 도착하면 7시 20분이었습니다. 7시 30분부터 45분 까지 보카영상을 시청하면서 외운 단어를 복습했습니다. 영상 시청이 끝나면 단어시험과 함께 그 전날에 배운 것들을 테스트 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복습 테스트를 통해 제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더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주마다 개인별로 복습테스트 결과를 묶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충문제를 내주는 공단기 종합반만의 복습테스트는 저에게 또 한 분의 선생님과 같았고, 이를 통해 약점을 쉽게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습테스트가 끝나고 약 30여 분 간 자습시간에는 테스트에서 틀린 문제를 정리하고 틀린 이유를 찾아 생각해 본 뒤 기본서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이렇게 공단기에서 1,2월 종합반을 수강하면서 기본 이론과 개념 체계들을 바로 잡을 수 있었고,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